* 수련회를 위한 ONE DAY 세미나

우리 수련회가 달라졌어요~!

조세영 목사 (용두동교회)

1. 여름을 준비하는 우리

1) 우리의 고민 : 여름 수련회를 꼭 해야 하나? 회의론, 무용론(無用論), 줄어드는 학생
추억의 과거 수련회 - 그때가 좋았지~!

2) 오늘의 상황 : 엄청난 흡인력을 가진 무시무시한 경쟁자들,
문화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에 따른 놀이문화와 세대의 변화
(협동적, 모이는 문화 -> 개인적, 흩어지는 문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대도 없고 재미도 없다.

3) 이제는 '무엇(what)'이라는 내용과 '어떻게(How)'라는 방법에 대한 물음보다
'왜(Why)'라는 목적에 대한 물음과 대답이 있어야한다.
목적이 분명치 않으면 내용과 방법도 올바르게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4) 올바른 계획은 '왜-무엇을-어떻게'의 연속성을 지닌다.

2. 좋은 수련회의 기획을 위하여

진단 → 목표설정 → 계획 → 실행 → 평가

1) 진단은 교육계획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고 원인을 해석,
확인하는 과정이다.
(학생들의 만족도, 관심도/관심사들의 상황, 문제의 원인분석/정보 수집과 정리, 해석).

2) 목표설정은 목적과 목표와 세부목표계획을 설정하는 과정이다.
※ 목적 : 일반적이고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계획. 왜 우리가 그것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
※ 목표 : 목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결과를 예측한 사항(진단을 통한 관심사에 접근)
※ 세부목표 : 목표를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한 설정. 세부목표는 6하 원칙의 질문을
수반한다.

3) 계획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선택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다.
교육활동의 설정은 목표에 기초하여야 한다.

4) 평가는 다시 올바른 방향을 잡도록 결과, 방법, 현재 일을 분석하는 일이다.
※ 목적에 도달하였는가...?! (비판적 사고: 문제 확인 분석, 원인, 전략에 대한 과정)
※ 프로그램을 통해 무엇이 경험되었는가...?! (프로그램의 장, 단점, 가치분류)
※ 학생 개인에게는 무엇이 경험되었는가...?! (개인의 변화)
※ 프로그램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가...?! (성취되는 과정)
※ 변형되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

3. 좋은 수련회를 위한 전략

1) 꼭 수련회를 해야 하는가...?! 왜...?!
※ 수련회, 돌파구인가...?! 블랙홀인가...?!
※ 계속교육과정(예배와 양육)과 집중교육과정(수련회)의 균형이 필요하다.
※ 도입부터 마무리까지 철저하고 세심하게 기획하고 만들어야 한다.

2) 수련회의 기존의 형식과 구조(paradigm)를 바꾸라!
※ 언제나 뻔한 수련회? 우리는 다 안다. 재미란 것은 없다.
※ 기대감을 갖게 하라! (현재 우리 중고등부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 특화(特化)된 수련회를 기획해야 한다.
예) 각 교회 상황에 따라 영성훈련중심의 큐티(QT)훈련 수련회, 기도 수련회,
찬양 수련회, 말씀중심의 전도(사도행전) 수련회, 출애굽기 수련회, 창세기 수련회,
성경통독 수련회, 필요한 주제에 따라 비전 공동체 세우기 수련회, 성령 수련회, 등
※ 눈높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3) 혼자보다는 둘, 셋도 좋다!
※ 연합 수련회의 강점과 장점을 활용하라!

4) 여름수련회의 계획과 준비를 위해 고려하고 점검할 것!
※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 이번 여름 수련회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전략에 맞는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 후속 프로그램을 준비하라!

“왜”라는 목적에 대한 물음과 대답이 확실하면, 내용과 방법은 올바르게 이끌어진다.
우리는 왜 여름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4. 청소년 수련회의 어려움과 그 해결점 (Problem & Solution)

Problem 1.

학원에, 봉사 점수를 위한 활동에, 가족 여행에, 방학 때가 더 바쁜 아이들... 그래서 학생들의 수련회 참여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ㅠㅠ)
많이 참여하여 수련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Solution
– 입시준비가 대세(大勢)인 방학 때, 학원 수강에 맞서 2박3일 혹은 3박4일의 시간을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우선은 수련회에 대한 기대를 갖도록 **잘 준비된 홍보(동영상, 포스터, 문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홍보에 따라 참여가 달라집니다. 홍보에는 패러디가 '최고'입니다. ^ ^ 그래도 학생들의 참여가 50~60%이상 되지 않으면 **수련회를 꼭 외부에서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십시오**. 수련회의 목적이 학생들의 '영적 성장과 공동체성 함양'이라면 **되도록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도록 교회에서** 잘 준비된 프로그램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Problem 2.

우리 교회는 학생들 숫자가 적어서 무엇을 해도 힘이 없고 재미가 없습니다. 소규모 교회들이 수련회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Solution
– 인원이 적다는 것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도록** 하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있는 만남과 교제가 가능합니다. 인원이 적은 공동체는 **투어(Tour)형태의 수련회에 훨씬 강점**이 있습니다. 혹시 지방에서 실시하는 **연합 수련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고, 지방 수련회가 없으면 사**역자들끼리 협의하여 비슷한 규모와 비슷한 영성의 4~5교회가 연합하여 수련회를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규모가 있는 **청년공동체가 실시하는 국내선교의 방법으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Problem 3.

수련회 때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교사와 아이들 때문에 부담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담 백 배~!)

Solution
– 사회, 학교 교육의 훈련 프로그램은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 교회 수련회는 그동안 너무 구태의연한 프로그램으로**'혹시나'하는 심정으로 참여했다가'역시나**'하는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돌아와'다시는 수련회에 가지 않겠다'생각하게 됩니다. 먼

저 **수련회를 하기 전에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목표설정이 필요**합니다. (위의 강의안 참고) 그 다음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기획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뻔한 수련회가 아니라 가끔은 **수련회의 기존 형식과 구조를 과감하게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특화(特化)된 수련회를 기획**해야합니다. 테마(Thema) 중심의 수련회가 좋습니다. 그 주제는 **영적 성장을 중심으로 실시하려면** 큐티(Q.T)수련회, 찬양 수련회, 전도(사도행전)수련회, 기도, 성령 수련회 등으로 기획하거나, **성경말씀을 중심으로 한** 출애굽수련회, 마가복음 수련회, 창세기, 여호수아, 빌립보서 수련회 등으로 진행해도 좋습니다. **학생들의 관심사에 따라서는** 비전세우기 수련회, 사명 수련회, 꿈 수련회 등을 진행하며, **공동체성 함양과 교제가 필요하다면** 한 장소가 아닌 계속 이동하며 함께하는 국내성지순례, 국토순례, 지역문화와 역사알기 수련회 등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농촌 봉사나 사회봉사 중심 수련회도 의미가 있습니다. 각 주제별로 수련회를 기획할 때 **이름에 걸맞는 수련회가 되도록 통합된 조직과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합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어떤 테마로 기획하든지 영성훈련과 재미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Problem 4.

해마다 장소를 구하기 위해 답사를 다니고 섭외하는 것에 너무 힘을 쏟게 됩니다. 효율적으로 장소를 섭외하는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Solution

– 감리교회 중 수련회를 실시하는 교회를 약3,000여개로 볼 때, **해마다 수련회 장소로 3,000여 장소가 사용된다**는 결론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귀중한 장소들을 **공유하는 네트워크(Network)가 그동안 없었다**는 점입니다. 올해부터는 교육국 차세대 교육부를 중심으로 각 교회에서 실시했던 수련회 장소를 간단한 소개(사진과 인원, 장단점, 비용)와 함께 **지정된 게시판에 올려 장소를 공유하여 시간과 물적 자원의 소모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단 먼저 자기 교회의 장소를 성실히 올린 교회에게 다른 장소도 열람하며 볼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겠습니다. ^ ^

Problem 5.

말씀과 기도 중심의 영성 중심과 시대와 문화를 반영하는 재미를 추구하는 것, 두 가지 수련회의 방향성을 놓고 교사들과 학생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어떻게 할까요?

Solution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영적 수준과 상황에 대한 사역자의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중요**합니다. 수련회 때 '은혜 받지 못하면 안된다'는 부담감(?)에서 오는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무리한(?) 요구는 아직 영적으로 갓난아기와 같은

학생들에게 반(反)작용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담당 목회자와 교사들이 **학생들의 영적, 육적 고민들을 잘 진단하여 그 필요에 응답하는 수련회가 되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성과 재미, 둘 다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그와 더불어 한 단계 성숙하도록 계획을 짜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Problem 6.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해주실 청소년들을 위한 강사 목사님들을 추천받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메시지와 어려운 교회 사정을 고려하여 저렴(?)하게 섬겨주실 강사님들 어디 없나요?

Solution

–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문제점과 영적 필요는 사역자 자신이 가장 잘 안다는 점**입니다. 가급적이면 **담당 목회자가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해서 집회를 인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외부강사를 원하신다면– *감리교 안에 전문적인 청소년 말씀사역자가 사실 손에 꼽을 정도로 수가 참 적습니다*– 올해부터는 교육국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보증하는 복음적으로 집회를 잘 이끄시는 목사님들을 추천**하여 교육국 홈피 지정 게시판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 추천 인명록을 참고하여 섭외하시고, 수련회 장소와 마찬가지로 **각 교회 수련회에 오셔서 좋은 말씀을 전해 주셨던 강사들이 있으면 강력 추천해 주시면** 서로 도움이 되겠지요. ^ ^

Problem 7.

원론(原論)적인 이야기 보다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실제적으로 수련회에 적용할 수 있는 일목요연한 매뉴얼을 원합니다.

Solution

– 각 교회마다 수련회는 해마다 실시하는데 준비는 언제나 제로 베이스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해마다 3,000여개의 좋은 프로그램들이 여름 한철 잠깐 사용되어지고 수련회가 끝나면 사장(死藏)되어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련회 전후(前後) 그 모든 과정을 자료화(D/B)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한 교회에 10년 정도의 자료가 쌓이면 길이 보입니다.
수련회의 매뉴얼은 **각 교회에서 정리한 자료**(용두동교회의 경우 지난 8년간의 여름행사 자료집이 구비되어 있음)나 **각 신학대학 커리큘럼 자료실이나 각종 기독교교육잡지(예: 신앙과 교육 등)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담당 사역자간에 나눔과 교제도 좋은 방법이 되겠지요. 더불어 주어진 **매뉴얼을 그대로 사용해서 진행하**

는 것보다 각 교회의 중고등부에 맞게 걸러내어 적용하는 작업은 사역자의 몫입니다. 힘들어도 창조적인 사역이 자신의 미래와 공동체와 자신의 리더십을 위해 좋습니다.

Problem 8.

재정적인 문제와 헌신하여 봉사해 줄 교사들의 숫자가 늘 부족합니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Solution

- 중고등부 담당 교사들이 휴가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수련회를 **미리 기획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은사가 있는 청년과 청장년을 미리 섭외하여 활용**하면 좋겠지요. 특별히 **중고등부 출신의 1~3년차 되는 청년들은 가장 시간적으로나 열정면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업무 분담과 동기 부여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규모가 적을 경우는 **연합 수련회를 하면 각 사역자들이 은사에 따라 강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재정의 경우 부장님들을 통해** 자녀 신앙교육에 관심이 많은 여선교회, 남선교회의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요? 기꺼이 헌신해 주실 겁니다. ^ ^

Problem 9.

수련회 때는 은혜를 받지만 교회로 돌아와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Solution

- 수련회 은혜 그 이후, 후속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수련회 기획에 후속 프로그램까지 들어가야 좋은 계획입니다. 수련회 후 2~3주 지난 후 **수련회 때 은혜 받았던 찬양을 중심으로 한 찬양집회와 더불어 1일 부흥회를 개최**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련회 때 프로그램을 통해 결단하고 작정한 것들이 수련회 이후 잘 실천되어지고 있는지 **담당 분반교사가 세밀하게 점검해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분반별, 부서별로 **편안한 1박2일이나 하루저녁 M.T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불어 수련회때의 **사진, 영상을 잘 정리**하여 보여줌으로 결단에 따른 실천을 점검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련회이후 자료를 잘 정리하는 것과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 옵니다. 사역자는 이 기본적인 부분이 점검되고 움직이도록 교사를 독려하고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roblem 10.

수련회 성경공부 교재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좋은 교재 추천바랍니다.

Solution

– 일단은 감리교 교육국에서 발행하는 수련회용 공과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각 수련회의 주제에 따라 시중에 다양하게 나와 있는 교재를 직접 사용하거나 상황에 맞게 편집하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재(敎材)에 빠져 교제(交際)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소그룹은 관계를 잘 맺는 일이 우선입니다. 교사들이 교재를 시간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지도가 필요합니다. 좋은 교재는 일방적인 강의, 가르침보다 내용은 단순하면서도 나눔(sharing)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수련회 사례 중심으로 본

일일세미나

수련회 기획과 준비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성욱 목사 / 박상규 목사

청소년 문화의 특징- 3F + 1F 세대

- 필링 Felling!
- 픽션 Fiction!
- 페미닌 Feminine!
- 퓨전 Fusion!

좋은 기획의 조건 - Want & Goal

생산적 PRODUCTIVE!

창조적 CREATIVE!

매력적 ATTRACTIVE!

동기부여적 MOTIVATE!

기획의 시작

미 션

"청소년 수련회를 위한
감각적인 디자이너가 되라!"

기획의 구성

대담한 구상

치밀한 기획

세심한 진행

to do list
check list
schedule & time table

기획의 시작

컨 셉

“청소년 수련회를 위한
감각적인 디자이너가 되라!”

실전
기획
방법론

일정 관리

우선 순위

기획의 시작

컨 셉

“청소년 수련회를 위한
감각적인 디자이너가 되라!”

자료 수집과 문제의 본질 접근

자료 수집

문제의 본질 접근

기획의 완성

기획의 점검

6W2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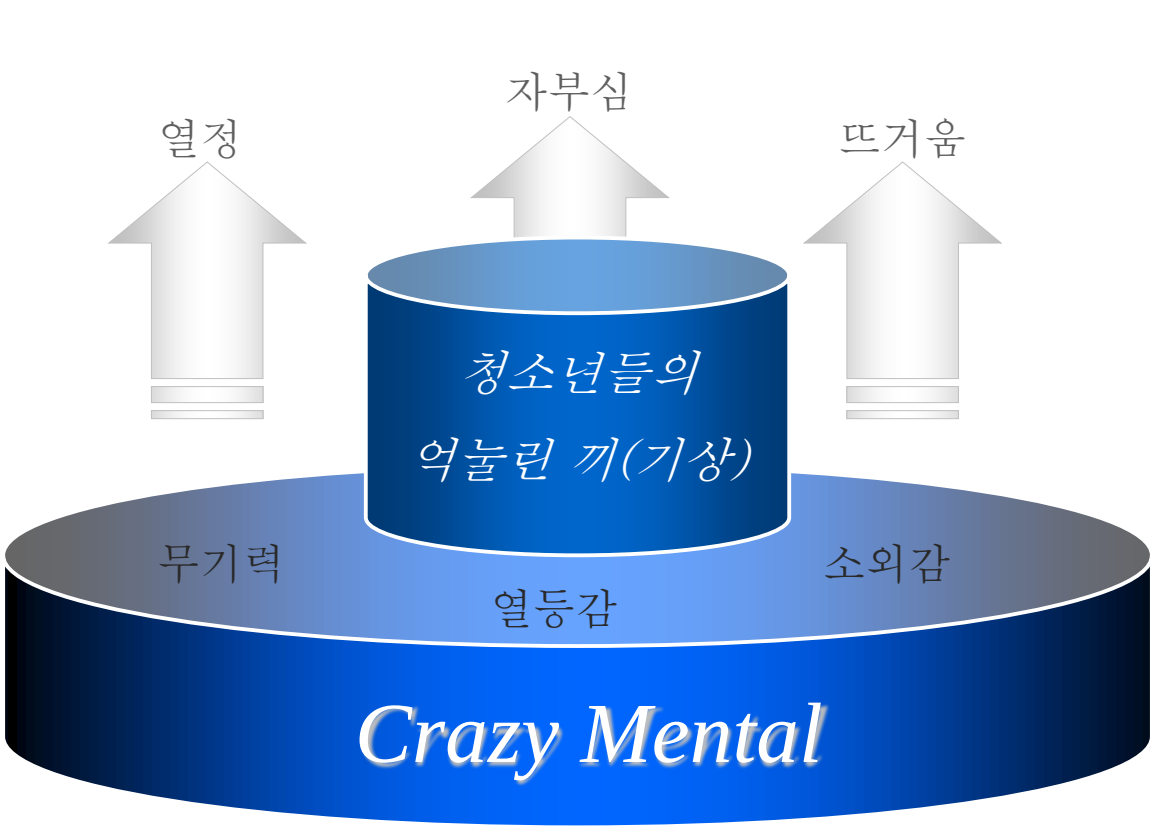
원칙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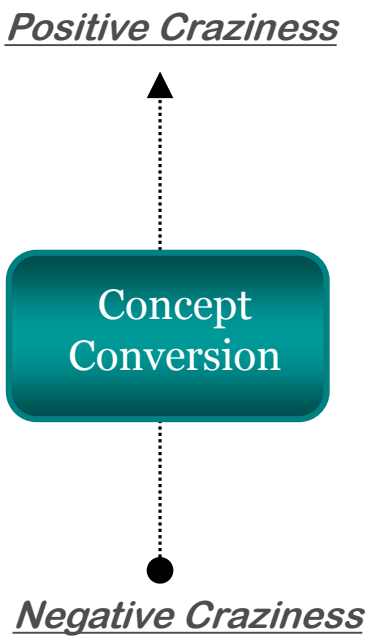
기획의 완성과 점검

Crazy for Jesus!

제기배경

"Be Crazy in Jesus!"





수련회 프로그램 원리와 방법론

양 희만 목사 (명지외고 교목)

Ⅰ. 성서와 수련회

1. 구약
① 쉐마
② 절기 (유월절, 초막절, 부림절 등등)

2. 신약
① 산상수훈
② 사도행전 초대교회

Ⅱ. 수련회를 바라보는 관점

1. 일상성 - 본래성 - 개선된 삶의 자리

2. 영성과 그 주변 과제들

3. 이상적 수련회의 모델

Ⅲ. 수련회 유형 분석과 모델링 제안

1. 전통적 수련회 - 친목, 집회, 공동프로그램

2. 연합 수련회 - 집회, 특강, 이벤트

3. 주제 수련회

신앙수련회
-창조 과학 수련회
-말씀 묵상 수련회
-성서 통독 수련회
-선교 비전 수련회
-성서 수련회 (창세기 수련회, 출애굽기 수련회, 사복음서 수련회 등)
-학원 선교수련회
-영어성경 암송 수련회

봉사체험 수련회
-해비타트와 학습방
-월드비전 기아체험
-기타 장애인 시설

진로와 학습 수련회
-비전스쿨
-TMD 수련회

문화 수련회

Ⅳ. 수련회 관련 강사진 및 프로그램 소개

1. 추천 강사 소개
집회 강사
특강 강사
특별 기도회 (떼제 기도회)
공동체 아이스 브레이킹

2. 추천 프로그램 소개
도입 프로그램 (선물백화점, 아이스브레이킹)
영상 큐티, 활동 프로그램 (코스학습방)
마무리 프로그램 (발대식)

3. 추천 연합 수련회

4.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분들 소개

예배 및 기도회 인도법(수련회 성경공부)

강사: 문대식 목사
서울 마포 늘기쁜감리교회 담임/ 어린이, 청소년, 청년, 교사 전문 부흥사/ 목회학 박사(설교 전공)/ 레크리에이션 강사
나사렛대학 초빙교수/ 프레이즈예술신학교 학과장 교수/ C3TV 인터넷 위성 설교 방송
극동방송 라디오 월요일 오전 10시 '사랑의 뜰안' 진행/ e메일: mo777on@hanmail.net/ 010-2390-6695
싸이월드 홈피 http://www.cyworld.com/mo777on

<부흥 기도법>
1. 부르짖어라.
2. 마귀를 대적하라.
3. 성령을 의지하라.

수련회 성경공부
1. 상담을 통한 교육 - 학생들은 부모님이 무섭거나 엄격하셔서 하고 싶은 이야기나 관심사를 털어놓을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가 있으며 학교에서, 집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생긴 기쁜 일과 슬픈 괴로운 일들을 나누고 싶어 한다.
2. 많은 것을 보고 체험하는 기회를 많이 주어라.
3. 전문 말씀집회(부흥회)를 하고 난 후에 그 말씀에 대한 질문지를 만들어 서로 나누게 하라.
4. 수련회에서 배운 것을 마지막에 성경필기시험을 봐서 실력향상을 테스트하고, 시상을 하고, 틀린 문제를 풀어주어라.
5. 교제와 영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인간관계훈련과 공동체훈련과 팀 소속되게 하기

<예배 인도자의 품위>
가. 단정하고 깨끗한 옷차림, 단체복 - 문제)미니치마, 불결
나. 상통하는 언어를 쓰되 예의 있는 불쾌감을 주지 않는 단어를 쓴다.
다. 한 어린이, 한 어린이 사랑스럽게 바라본다.

<예배 인도자의 자질>
1. 교사는 자질향상을 위한 교사 세미나, 교사 대학, 교사 강습회, 교사친목도모 등에 적극 참여한다. 배우기 싫고 어울리기 싫으면 가르치지 마라.
2. 전도와 구원과 복음을 연구하고 공부하라.
   (1) (벧후 3:18)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2) (사 50:4)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 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3) (벧전 3: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피교육자들은 묻고 있는데, 교육자는 대답 못하거나, 잘못 대답하고 있다. 모범도 되지 못한다. 지혜를 구하고, 구상하고, 자료를 모으고, 배우고, 연구하라.

Ⅰ. 집회 인도 제대로 하기

- 기본 -
1. 흥미와 재미라는 수단을 통한 '은혜 체험'이 목표!
2. 좋은 교사의 3대 조건: 사랑 + 기술 + 지식
3. 기도와 열정은 교사의 기본.

4. 오직 설교(말씀을 가르침)가 청중을 살린다.

(4) (시 119:50)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5) (고전 14:19)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5. 구원론을 확실히 알고 믿음이 없으면 왜 지옥에 가는지가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왜 천국에 가는지를 제대로 이해되게 가르쳐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넣다 뺐다) 하게 하지 마라.

-자세와 자격-

1. 성경용어사전과 기독교서적과 주석서 등이 있는가? - B)조각목-아카시아 나무/ 므낫세 반 지파; 요단 강 중심으로/ 할례/ 상고/ 저자...
2. TV와 신문을 보며, 동창회를 통한 친구들과의 만남 등을 계속하는가? - 배움과 전도의 목적
3. 기도는 기본이며 실천임을 알고 있는가? 평신도는 하루 30분, 교사는 하루 1시간만 하면 최고 교사가 된다. 예)기도는 지가 하고…….
4. 애들에게 상처받거나, 욕을 먹어도 결코 노여워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사표 쓰지 말라.

(가) (마 5:11)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마 5: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나) - 예)18의 복

(다) (롬 8:17)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 -예) 부흥회 후 링거의 복

5. 배우기 싫으면 가르치지도 마라.

예) 요단강 교사(흐름, 세례)↔사해 교사(떠 있음, 나누지도 받지도 않음, 죽음, 잘못된 예배 태도)

'배운다'의 히브리어 말은 '라마드'인데, 이것은 또 '가르친다.'는 말과 똑같이 쓰인다. 결국 "배우려고 하는 자는 계속 가르쳐야 하고, 또 가르치는 자는 계속 배워야 하고 배워야만 가르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다.

6. 지혜를 구하라. 예) 헌금 도둑질 사건 해결

- 좀 하지 마세요! --!)

1. 공과를 교사 혼자 줄줄 읽지 마라. 대신 순서대로 읽히고 답하게 하라. - 초신자는 시키지 마라/ 갑자기 바꿔라.
2. 자기도 남도 확신이 없고 아리송한 것과 쓸데없는 생각을 던져 주는 것은 아예 설교하지 마라. 예) 이단, 연옥, 종말, 예언, 외계인, 공룡...
3. 아이들을 정죄하지 마라. - 예) "너 이노무 새끼 지옥 가고 싶어.→엄마, 나 천국 못 간데."/ "뭐, 오락실에 갔었다고? 기도하자.--"
4. 설교자의 입장을 구걸하거나 수고한 것을 너무 티내지 마라. - "나 피곤한 사람이야, 너 만한 자식이 있어, 100원씩 줄게, 빨리 끝내자..."
5. 사상과 조류, 신념 등에 휩싸인 자기주장을 내세우지 마라.(성차별/ 보수, 정통, 자유, 근본.../ 주일과 제사/ 이혼/ 정치와 운동권...) 예) 구원과 우상숭배와 제사의 문제.
6. 한 교훈을 너무 길게 말하지 마라.
7. 번호를 매겨서 설교(강의)하지 마라. - 글 쓸 때는 이것이 좋지만... 예) 2번째/ 3 다시 1번째!

- 좀 하세요! ^^)

1. 아이들의 눈빛을 보고 지루해하면 분위기를 바꾸던가 아니면 빨리 끝내라. - 애들 탓하지 마라. 예) 설교시간 지켜 컷!(모가지 자르기)^^
2. 시간은 아이들이 지루해하기 직전의 시간을 강의하고 매주 일정하게 하되 눈치 못 채게 최대한 늘려라. 쉬었다가 하거나 재미있는 것을 하고 또 하면 그만큼을 또 강의할 수 있다.
3.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로 끝내도록 하라. - 시작이 중요한 만큼 마무리가 50% 중요
4. 배울 본문 성경구절을 짧게 잡아라.
5. 성경의 단어 뜻을 풀어줘라.
6. 주석, 성경용어사전을 사서 참고하라 - 예) 할례?/ 어린이들이 자기 눈을 빼게 해선 안 된다.
7. 세미나는 가르치는 것이고 설교는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8. 철저하게 그 시대의 언어로 그 세대에 맞게 표현되어져야 한다. 약간의 속어 사용은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
9. 일반상식도 가르쳐라(영어, 한자, 어려운 한자어 풀이 등) - 전인교육과 과외 기능
10. 설교의 수준은 청중 그룹의 중상으로 맞추어서 설교한다. 어차피 최하층은 듣지 않는다.
11. 중요성구는 외워라. - BUS에서 외워라.
12. 들어갈 때(처음)가 제일 중요하다. - 예절 교육(인사) 꼭 해야
13. 강의 할 땐 질문 받지 마라. (교사가 모를 수도 있음-은혜 안 됨/ 맥 끊김/ 장난치려 함/ 묻는 말에만 대답하도록 하라/ 공과 마지막에 몰아서 질문 다 받아 궁금증 주어라/ 모른다고 하라. 공부 해오겠다고...)
14. 쉽게 설명하라. (B>어투-자냐?/ 단어-똥, 팬티/ 예화? - 본문이나 재미있게 얘기한 다음에 꼭 필요하면...)
15. 새로운 것이 좋다. - TV, 동화 등의 아이들 수준에 맞는 예화를 들라.
16. 비유와 예화를 가장 적절할 때 이용하라. - TV, 신문의 뉴스와 화제에 민감해라. 교재는 성경을 부교재는 문화를(텔레비전, 영화, 신문, 음악 등) / 예화를 주중에서 학생들의 이야기나, 주변이야기에서 찾는다.
17. OVER 하라.(크게, 넓게, 자주) - 예)보디발; 아이들은 선생님과 달라서 안 웃긴 것이 매우 웃길 수도 있다.
18. 궁금해 할 것을 이해시켜라. 예)노아의 홍수와 약수 터짐
19. 문답식 설교를 하라.(잘한 것만 손들게/ 전부 손들고 아닌 사람 조건 질문에 맞춰 손 내려가기/ 초신자나 저학년, 내성적인 애에게 질문 금지)
20. 응용력을 길러줘라.(여룹바알(기드온)→여룹오락)
21. 청소년 설교는 감성적인 이후에 이성적이어야 한다.
22. 열거법을 이용하라. (양치기. 개치기..)
23. 단어 연상법을 이용하라. (금식, 소식, 포식, 단식..)
24. 암기력을 길러줘라 (아펜젤러/ 에스더-와스디/ 삭개오/ 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웃사...)
    나) (약 2:16)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25. 눈을 계속 돌리며 아이들과 눈을 마주쳐라. 예)^^ 사시-이노무 새끼 엄마가 얘기하는 데 어딜 봐!
26. 아이들 이름을 기억해 자주 호명하고, 예를 들 때 그 친구로 들되 상처를 주지 마라. 예) 어흥아!
27. 상상의 날개를 펴서 성경 이야기를 재미있고 실감나게 들려줘라. 성경은 문자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을 위한 역사책이 아니라, 구원과 구원받는 삶을 위한 진리에 대한 설명서이다. 예) 노아-"등산 수영복 입고 오너라!^^"
28. 따라하게 한다.-중요 성구, 제목, 실천 강령, 규빗(45cm) 표시
29. 자기만의 재주와 기술을 가져라. - 손 게임/ 춤: 이상한 나라의 폴, 앗 뜨거워/ 마술
30. 게임에 익숙하여 실전 배치하라. 예) 거짓말하면 손가락 잡기, 자리 바꾸기
31. 집중 안하고 딴 짓 하거나 조는 아이를 놀래어라 - 끊었다가 분위기 잡고 다시 함, 얼굴로 갑자가 다가섬, 이름 부름, 접근함, 예로 거론해버림, 질문함, 큰소리 냄, 따라하는 동작이나 말을 전체에게 시킴...
32. 설교의 주된 내용은 성경적인 지식보다는 그들의 세계관, 가치관, 비전, 꿈, 용기를 심어주는 그 시기에 맞게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내용을 던져줘야 한다.
33. 답을 무조건 가르쳐 주지 말고, 퀴즈로 내는 데 예제를 들되 4지선다로 하되 예를 재미있는 것으로 들어라. 예) 1)까마귀 2)비둘기 3)기러기 4)막대기.../ 1)고센 2) 고집센 3)물센 4)또센
34. 질문하면서 생각하게 하는 설교를 하라. 예)행복? 돈→건강→자식→우울.../ 세상살이 속의 구원과 복(거지와 자살?)
35. 설교가 거의 끝나 갈 때 '이제 마지막'이란 말을 해 주어 분위기 환기시키며 힘을 내 듣도록 삶의 희망과 위로를 주라.
36. 제목을 산뜻하고 한눈에 정리되게 잡아라. 예) 내 영혼의 닭고기 수프(콩나물 국)
37. 핵심진리가 있어야 한다. 예) 사랑, 인내, 회개
38 성경에 있는 내용중심의 설교가 예화 위주의 설교보다 좋다. 7일에 한번 듣는 설교를 당연히 잔소리가 아니라, 성서의 이야기를 해줘야...
    다) (딤후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39. 설교시간에 대답과 구호를 가끔씩 요구해 잠을 깨워라. 예)“너 왜 그러니?”를 서로 묻게 한다/ 할렐루야-아멘 아멘!/ “아멘 4번 시작” 하면 전체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아멘 4번을 외치되 마지막에는 일어나지 않기...
40. 말의 크기와 발음, 속도(빠르기)에 대한 반성.
41. 말을 조심해라. 재밌는 단어, 어린이나 청소년이 쓰는 단어를 쓰되, 강사의 평소 말투가 나오는 경박한 말은 쓰지 마라. 누구나 말실수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교사의 말실수는 죄다. 예) 어린이(초4) - “아 그래서(술, 담배해서) 우리 아빠 땜에 우리 집이 잘 안 되는구나”
42. 대답이 아닌 생각을 요구하라. - 예) “어떻게 생각하니?, 넌 어떠니?...”(O) ↔ “공과 시작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면 빨리 끝낼게요. 알았니?...”(×)
43.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내용의 질’은 ‘전달의 유무’ 다음이다.
44. 커뮤니케이션이므로 청중을 정확하게 이해하라(나이·환경·그곳 지역의 특징).

Ⅱ. 유능한 교사

A. 부흥회

<부흥회>
-부흥회 前 준비-
1. 환경 설치- 조명, 의자, 마이크, 음악, 빔 프로젝트, 칠판, 물과 물수건...
2. 자리배치에 신경을 써라. (어린이, 선생님, 부모님 등) - 자신 없으면, 잘 듣는 학년 앞에
3. 설교 시간에 예의를 갖추게 하라. (자세, 인사, 떠들 때) - 손들기 벌, 선생님 동반 퇴장, “6학년 다 큰 게 떠들어, 1학 년 어린 게 떠들어, 3학년 알만한(어중된)게 떠들어.^^”
4. 빔 프로젝트(파워 포인트)나 칠판을 이용하라 (O. H. P./ 사진/ 실물 등을 이용)
6. 교사 준비 기도회
7. 강사 선택과 선(先) 주문, 교사와 강사와의 선 만남

-부흥회의 유익한 점-
1. 그 동안의 신앙을 정리하고 결단한다.
2. 구원의 확신을 준다.
3. 말씀의 재미와 은혜를 깨닫는다.
4. 새어린이, 청소년으로 마음과 행동이 변화된다.
5. 새로운 만남, 새로운 기분
6. 영적 충만, 영의 보신을 한다.

-부흥회의 유의할 점-
1.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
2. 부흥사 개인에 관심을 더 갖게 해선 안 된다.
3. 교사가 은혜와 도전을 받아야 한다.
4. 정기적으로 할수록 좋다.
5. 하나님은 부흥사를 따로 세우신다.

-부흥회의 4대 성공 요인-
1.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 인도하심
2. 청중의 준비된 마음
3. 준비되고 훈련된 부흥사
4. 환경의 적절한 준비

B. 유능한 교사

<유능한 교사가 되려면>
1. 준비와 연습을 하라(완전 소화).
2. 메모광이 되라.

3. 평소에 실력을 쌓아두어라. 벼락치기 설교도 히트 치도록... 예) 조정래씨의 천재성과 '태백산맥'/ 박영선 목사의 설교
4.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남의 단점을 나의 장점으로, 예) 남 입에 모 묻은 거 보면 날 보게 된다.
5. 사람 다루는 센스를 키워라. 그 대상과 늘 같이 지내려고 하고, 화술 책과 웃기는 사람과 친해라.
6. 자신만의 설교(공과)노트 작성법을 가져라. B), B>, 예), 言), ^^)...
7. 구원론 성령론 등의 신학적 지식과 설명 기술의 가져라. 예)유리창과 믿음/ 고아원과 성철/ 태구와 조산원의 엄마/ 문　　천식과 믿음/ 자살과 구원
8. 어디서나 한 수 배워라. 도둑질 빼고
9. 컴퓨터, CD, 인터넷, 빔 프로젝트 등(현대적 물질문명)을 이용하라. 자료, 성구 검색. 예)똥(O), 바보(X)

라) (말 2:3)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Ⅲ. 특강 - 신학이론과 설교

구원론 정리(행위와 믿음, 제사(절)과 구원, 자살, 아기의 구원, 서원의 취소, 교회와 목사에 대한 태도...)
성령 충만과 은사(방언)
귀신의 세계
구원, 복, 상의 구별과 강조(상급론의 중요성)
천국의 삶과 인생의 어려움, 죄의 피해에 대한 바른 이해

(약 2:14)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마 7: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요 6:40)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고전 3:15)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고전 5:5)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단 12:3)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고전 14:15)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눅 16:16)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왕하 5:18)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왕하 5:19)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민 30:8)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경솔히 입술에서 발한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요일5:16)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요일 5:17)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마 5: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 11:12)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롬 10:14)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

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행 19:2)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갈 3:5)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고전 14:1)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고전 14:2)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 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성프로그램은 어떻게?

최용태 목사(한사랑 교회 교육목사)
E - mail : human0113@hanmail.net

여름이 다가오고 방학이 다가오면 모든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느라 바빠지기 시작한다. 여름 수련회는 사용되어지는 비용이나 준비기간으로만 봐도 각 교회 교회학교 안에서 행해지는 행사 가운데서 가장 큰 행사이다. 영적인 면으로만 보아도 공동체 안에 가장 큰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수련회다. 그래서 사역의 현장에서 수련회를 준비하며 사역자들과 임원, 그리고 교사들에게 즐겨 외치는 구호가 있다.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 한 해의 영적 흐름을 형성하고,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가을의 추수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이다.
실제적으로 여름이나 겨울 수련회를 잘 준비하여서 중, 고등부아이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형성될 때 교회 속에 미치는 영적인 영향력과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상상을 초월하고,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현재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신앙의 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인생의 원대한 비전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지금 한국 교회와 청년들에게 거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수련회임에도 불구하고 각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는 수련회가 잘 준비되지 못할 때가 있다. 또 준비가 되더라도 매년 하던 프로그램을 하듯이 치러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보니 영적인 성장도 없고, 목적도 없고, 재미도 없는 '삼무(三無)수련회'가 되고 만다. 특별히 중, 고등부 수련회를 통하여 교회와 담당 사역자들이 바라는 것은 학생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한 영적 성장과 성숙을 바라지만 그것도 힘들어 보일 때가 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에게 수련회는 '가기 싫은 수련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것은 각 공동체의 영적인 흐름과 필요성을 무시한 채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각 교회 중, 고등부 수련회에서 모든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준비해야 할 부분이 예배(부흥집회) 및 기도회, 성경공부, 등 영성 프로그램이다.
이제 필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이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교회 교육의 현장에서 실시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들을 이야기 할 것이고, 그동안 느꼈던 바를 정리해서 말하려고 한다. 모든 것들이 교회현장에서 사역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필자와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할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좋은 도전과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 예배(부흥집회) 인도

①모든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한다.

우선 수련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각 교회 나름대로의 주제와 목표를 가지고 매년 수련회를 하고 있지만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한가지의 목적을 말하라면 '중, 고등부 학생들이 인격적인 성령의 체험' '그리스도와의 만남'일 것이다. 그러므로 수련회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모든 일정을 예배 중심으로 기획해야 한다. 혹이나 다른

프로그램 때문에 ‘예배’가 손상을 받거나 중, 고등부 학생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각 교회에서 범하기 쉬운 실수를 말하자면 충분하지 못한 예배시간의 배정이다. 수련회는 하나의 훈련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수련회를 통하여 학생들은 말씀을 듣는 훈련과 찬양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예배에 충분한 시간을 배려하지 못함으로 훈련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또 한 가지는 무리한 프로그램의 기획과 육체적 피로를 가중하는 군대식 프로그램의 실시로 인하여 정작 중요한 예배시간에는 집중하지 못한다.

②기대하는 마음을 나누라!

수련회를 떠난 다고 했을 때 중, 고등부 학생들도 수련회 기간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수련회가 어떻게 진행 될 것인지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자칫하면 학생들이 수련회에 대한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고 참석할 때가 있다. 그러다 보니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집회에 참석하기도 한다. 따라서 수련회 전체는 아니더라도 예배를 앞두고 예배시간에 기대하는 바를 나누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예배가 찬양 팀의 찬양인도를 시작으로 시작된다고 할 때, 본격적인 찬양이 시작하기전 학생들이 예배 실에 조별로 모여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기대감이나, 기도 제목 등을 나누고 , 조별로 기도하도록 한다. 이런 나눔은 어떤 생각이나 기대감 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의미부여와 목적을 부여하게 하고,

③가장 강력한 무기?

그렇다면 수련회의 중심이 되는 부흥집회를 통하여 중, 고등부 학생들이 은혜를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요소가 중, 고등부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할 것인가? 청소년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과 찬양’이다. 특별히 설교의 내용 중에서 말씀의 내용을 무시하면 안 된다.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자기화 된 말씀을 전달 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설교의 내용은 본문중심의 설교가 되어야 한다. 예화도 세상의 이야기와 감동적인 이야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가장 좋은 예화는 자신의 경험과 진실이 담겨져 있는 고백적인 예화이고, 그 다음은 성경본문에서 비슷한 요소의 예화를 들어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말씀’ 그 자체에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할 것이다.

④준비된 ‘찬양 인도자’와 ‘찬양 팀’은 팀은 필수적이다.

‘말씀’과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강력한 영적 파워를 느끼도록 해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찬양’이다. 어느 때는 ‘찬양’ 한곡이 청소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결단하게 하는 찬양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대적들과 맞서는 영적 무기로 찬양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많은 시간을 원수들과 대적하느라 꾸짖고 떠나가라 고함치는 것보다 훨씬 더 건전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일을 내 손으로 일일이 하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

특별히 찬양팀과 찬양인도자의 자질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우선적으로 자신들 스스로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할 것이고, 그들 스스로 예배 자가 되고, 사람들을 예배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찬양팀은 예배의 방향성과 주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고, 그것에 따라 찬양선곡을 신경 써야 할 것이다. 특히 찬양의 선곡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회중들의 수준을 생각하며 선곡해야

할 것이다. 찬양 집회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음악은 '도구'라는 사실이다.

⑤공동체의 영적인 흐름을 파악하라!

수련회를 기획하는 사람이 기획단계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공동체의 영적인 수준을 알아야 할 것이고, 공동체의 영적인 흐름을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영적인 수준에 다라서 말씀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련회의 기획자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공동체가 수련회를 통하여 한 단계 성숙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이런 사전 작업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공동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 전해지거나, 아니면 지난해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말씀이 증거 되면서 공동체가 성숙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다.

⑥설교자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조절계가 되어야 한다.

중, 고등부 수련회에서 설교 시간은 얼마가 적당할까? 정답은 없겠지만 본인의 경험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사이가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더 짧을 수도, 더 길 수 도 있을 것이다. 억지로 그 시간을 맞추려 할 필요는 없다. 설교자는 학생들의 반응에 민감해야 한다. 학생들의 육체적 상황과 영적인 상황, 그리고 그들의 욕구가 어디에 맞추어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적절하게 분위기와 설교내용을 조절하는 온도조절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⑦이야기(story) 구조의 설교를 하라!

우리 시대의 아파트는 단순히 '집'의 의미가 아니라 가치 있고, 이야기를 담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다. (예:E-편한 세상, 꿈에 그린, 캐슬 모닝 . . .등) 그래서 경영학자들은 말하기를 소비자 들은 상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상품에 얽힌 이야기를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나이키' 신발이 잘 팔리는 이유를 아는가? 그것은 단순히 나이키라는 브랜드 때문이 아니라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나이키라는 브랜드에는 '승리, 신화, 불패'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동일한 질의 신발보다 값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설교'에도 연결시키려고 노력한다. 설교 한편을 한편의 이야기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단어하나도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내고, 연결시키려 한다. 그럴 때 설교를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들도 깊은 인상으로, 남게 될 것이다.

⑧도전과 비전이 가장 큰 위로다!

수련회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부분이 중, 고등부 학생들에게 남아있는 마음의 상처를 성령님의 이름으로 터치하고, 치유하는 시간이 있다.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에게 빼놓을 수없는 부분이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자칫 우리가 범하기 쉬운 문제는 상처를 터치하고, 치유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한다. 예배는 새로운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은 상처를 치유 받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게 만들고, 도전을 하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비전과 도전이다!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달려 갈 길과 새롭게 도전할 대상을 찾는다면, 그것은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이다.

▣ 기도회 인도

①그날의 영적 흐름을 놓치지 말라!

기도회도 말씀의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 그러므로 기도회 인도자가 말씀의 흐름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영적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전하여진 말씀 속에서 그날의 기도제목을 잘 뽑아내야 한다.

②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

모든 것들이 그렇겠지만 특별히 기도회를 인도할 때는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칫하면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인간의 노력이나 분위기로 이끌고 가기보다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의지해야 할 것이다. 물론 찬양을 하고, 부르짖고, 은혜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기도회를 인도하며, 인위적인 노력이나, 방법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③단번의 기도보다는 조금씩 나누어서 하라!

기도회는 한 번의 기도제목을 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도 있는가하면, 여러 가지 기도제목을 나누어 제시하고,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것이 좋다고 말 할 수 없고, 이 문제도 공동체의 상황과 목회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문제다. 다만 지나온 경험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대개의 많은 중, 고등부 학생들은 길게 기도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나누어서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④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기도회 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기도 형식을 볼 수 있다. 첫째는 ‘부르짖는 기도’이고, ‘침묵기도’이다.

두 기도형태의 균형감각을 유지하고, 기도회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혼합하는 것이 좋다.

⑤찬양과 함께하라!

다시 말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찬양의 영향력이란 거대하다. 말씀의 주제에 맞는 찬양은 은혜 두 배의 기쁨을 더할 것이다.

⑥기도의 형태를 다양화해라!

⑦홀로 기도보다는 집단적 기도를 하라!

⑧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결단의 기도를 하라!

▣ 수련회 성경공부

‘성경공부’는 솔직히 말한다면 평상시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 이루어지더라도 시간에 쫓겨서 일방적인 주입식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면 수련회라는 기간에 이루어지는 성경공부는 학생들에게 성경공부의 재미와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수련회기간에 갖게 되는 성경공부도 소홀히 할 수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①교재개발이 중요하다!

교재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기존에 나와 있는 교제를 쓸 때는 그대로 써도 무방하지만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공동체의 상황에 맞게 다시 재편집을 하는 것도 좋다. 성경공부 교재도 전체의 주제와 연결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②담당교사의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

성경공부는 소그룹별로 진행 될 텐데, 소그룹을 지도하는 담당 선생님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별히 담당 선생님은 성경공부 전반에 관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공부의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③충분한 시간 확보 및 치밀한 시간 분배가 필수!

일방적인 주입식의 성경공부라면 단 한 시간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수련회의 성경공부는 평상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기회임으로 중요하다, 아이들끼리 성경을 찾아가며 성경 본문중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며,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결의하고 찾아 낼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④본문중심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⑤생각과 토의 내용을 만들라!

성경공부시간을 통하여 성경본문의 충분한 숙지가 되었다면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깊이생각하고, 토의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들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필수다.

⑥발표의 시간을 갖는다!

생각과 토의 시간을 거쳐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결정했다면 그것을 조끼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인자리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그럴 때, 다시 한 번 신앙적인 결단을 하게하고 자신들의 소그룹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내용이 다른 소그룹에서 발표되는 것을 보며 신앙적인 풍성함과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⑦수련회가 끝난 후의 영향력까지 기대하라!

구체적인 실천 과제가 소그룹을 통해서 발견되기도 하지만 기획단계에서부터 성경공부시간에 실천사항을 제시 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은 장기적인 실천사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수련회를 마친 후에도 그 영향력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지속되도록 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 문 화 예 배

수련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면 크게 두 가지다. 개회예배와 폐회예배, 그리고 문화적 행사(CCM공연, 뮤지컬 공연, 특강 . . . 등)가 있을 수 있다. 다년간 수련회를 진행하며, 또 각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느끼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예배의 변화를 꿈꾸지만 예배의 변화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배도 다시 한 번 생각 해보아야할 부분이다.

①개회, 폐회예배

우리는 개회 및 폐회예배를 성의 없이 진해하거나, 시간에 쫓겨서 빨리 해치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수련회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예배이고, 또 수련회를 마치고, 결단하는 예배라고 하면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각의 예배 안에 문화적 요소를 두고 진행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와 느낌을 줄 것이다. 그렇다고 반드시 많은 재정을 들여 고급스러운 문화를 추구하거나 질적으로 높은 문화를 추구하라는 것은 아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재원들을 사용하자! 예를 들자면 개회 예배 시에 악기연주, 워십 댄스, 한국 무용, 사물놀이, 발레, 수련회 준비 영상, 부모님으로부터 온 영상편지, 자기 소망, 기도제목 적기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폐회 예배 시에는 간증문, 수련회 동영상, 조별 희망프로젝트, 희망 풍선 날리기, 성찬식(십자가 목걸이)등이 있을 수 있다.

②문화행사

문화행사라고 해서 다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전체적인 수련회의 흐름을 깨지 않고, 적

절한 시간과 적절한 분이기에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축제적인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은혜위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 분위기에 맞는 CCM가수나 공연팀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수련회는 교회교육에서 절대로 포기 할 수없는 부분이다. 가장 많은 예산과 열정과 준비기간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의 영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공동체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프로그램과, 탁월한 기획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더더욱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성령님의 역사이다. 이 일을 위하여 수련회 기획자와 준비위원들은 무릎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 2008 중·고등부 수련회 one day 세미나 –

중·고등부 수련회 이후는 어떻게?

– 강사 : 김 종 석 교육목사
(서울 은혜감리교회)
e-mail : yeram1122@hanmail.net

◐ 수련회 후속 프로그램이 중요한 이유◑

① **수련회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다.**

"수련회는 그 때 뿐이지 다녀오고 나면 똑같아 진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변화의 과정을 잘 깨닫지 못한 발언이다.

- tip : 사람은 한 번의 충격으로 완전해지지 않는다. 우리가 회심했을 때도 '한 번에 변하겠지.' 생각하지만 실제로 한 번에 변하지 않고 육체의 법과 하나님의 법 가운데 싸움을 하며 승리를 하게 된다. 이게 바로 성화이고 변화의 과정이다.

② **보온병 효과**

중고등부 전체의 분위기 역시 늘 수련회 같을 수는 없지만 수련회의 분위기가 최대한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식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천천히 식을 수 있도록 막는 보온병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 수련회에서 다시 끓이면 된다.

③ **후속 프로그램이 중요한 이유**

신앙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끝 까지 지키고 다듬으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려면 수련회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키도록 만들어 주는 후속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다.

◐ GMCS[1] 중고등부 캠프의 프로그램(특징)◑

① **조를 마을별 가족별로 구성**

- tip : 은혜교회학교 마을시스템을 기초로 4개의 마을 안에서 3개의 가족을 나누어 각 가족 마다 교사가 2명씩 들어가게 된다. 이 때 교사를 교사라 부르

1) GMCS는 GRACE METHODIST CHURCH SCHOOL(은혜감리교회학교)의 약자이다.

지 않고 영적 아버지, 어머니라 부르며 친 가족 같은 유대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② **내·외부 강사의 강의**

- tip : 교역자 or 교사들이 진행하는 선택강의가 있었고, 청소년들의 행동으로 보는 성격 테스트(DISC)가 있었으며,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초청강의를 들음.

③ **코스게임의 다양화**

- tip : 기존의 천로역정 같은 힘든 코스게임부터 요즘 한창 인기를 누렸던 카트라이더를 온라인 상에서 오프라인으로 옮겨 청소년들의 코드에 맞추려고 함.

④ **영성훈련**

- tip : 수련회 기간 중 새벽에 침묵기도 집회와 아침에 가족별 Q.T를 갖도록 하며, 가족 모임 자체에도 중등부 학생들부터 고등부 학생들까지 한 가족이 되어 청소년기에 있는 고민에 대해 서로 말하며 도움을 얻고 또 받기도 하는 분위기를 형성. 그 나이 때에 고민하는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함, 찬양팀 구성을 중고등부 학생들로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참여하는 청소년들로부터 도전을 주고 또한 저녁에 있는 영성 집회가 가장 중요하다. 영성집회 인도는 반드시 담당 교육목사가 인도하며 이 때 말씀과 기도로 학생들을 은혜 받도록 인도함. 교사와 학생들이 2대1(교사 한 명에 학생 두 명)이 되어 학생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흐리며 기도를 해주며, 가급적이면 캠프 마지막 날 저녁 집회 시간에는 학부모들을 캠프 집회에 참석하도록 유도 한다.

◐ 수련회 사후 프로그램 ◑

※ 영/ 성/ 훈/ 련/

① **우선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함**/ 말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다.

- tip : 청소년들에게 끊임없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중고등부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 “너희들이 서로 위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다.”, “너희들 때문에 살맛이 난다.” 이런 말들을 했을 때 청소년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② **새벽기도 대작전**/ 수련회가 끝난 후 중고등부 학생들을 새벽기도회로 무장하게 한다.

- tip : 청소년들이 받은 은혜가 있어서 자기들끼리 모여 기도도 하려고 하며 말씀도 읽으려한다. 이 때 사역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으면 이 열정에 불을 붙일 수가 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새벽기도다 다니엘 21일 기도회나 교회 사정에 맞추어 특별 새벽기도회를 선포하면 처음에는 많이 나오지 않겠

지만 학생들끼리 입소문이 나서 나중에는 많은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때 주의점은 교사들도 꼭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③ **성경을 알자**/ 수련회 이후에 청소년들이 성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다.

- tip : 성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될 때 토요일이나 주일 오후를 선택하여 청소년들에게 선택 강의를 듣게 한다. 예로 인물 중심의 성경공부, 역사 중심의 성경공부, 지리 중심의 성경공부, 창조와 관련된 성경공부 등 몇 가지의 성경공부를 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 주어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궁금한 부분의 성경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다.

④ **고3과 수험생을 위한 특별 기도회**/

- tip :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그들의 목표는 수능시험을 잘 보는 일이다. 현재 고 3과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회를 하면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관심 받고 있으며 사랑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보통의 교회는 부모님들만 나와서 기도회를 한다. 이 때 전체 청소년들이 함께 나와서 고3을 위해 기도회를 참여하면 기도의 용사들로 만들 수 있고 또한 나중에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기도 하며 교회의 좋은 전통으로 자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행사 프로그램

① **1박 2일**/ 요즘 트렌드 티비 프로그램(KBS에서 방송, 강호동 진행)

- tip : KBS 주말 오락프로그램인데 1박 2일 동안 우리나라의 경치 좋은 곳을 다니면서 그 연예인들의 인간적인 모습들이나 공동체 생활에 대해 보여주는데 수련회를 다녀온 조별로 교사와 함께 1박 2일이나 1일 정도로 밖에 나가서 학교나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한다. 예를 들어 인공암벽등반 체험이나 수목원, 혹은 도자기마을 방문, 주말농장 등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리고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알게 하며 유대관계를 더욱 쌓게 한다.

② **중고등부 Festival**/ 수련회 다녀온 후 가까운 시간에 하면 좋음

- tip : 청소년들은 수련회를 다녀온 다음 교회에서 예배 끝난 후 자주 모여 자신들끼리의 시간을 갖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런데 이 시간에 청소년들끼리 모여 노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하지 말고 수련회 때 있었던 조별 발표, 중창, 합창, 꽁트 등을 청소년들 스스로 준비하게 하고 이 준비한 것을 주일 저녁예배 때 발표를 하도록 하자. 이는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수련회 분위기를 계속 연계하는 부분도 있지만 교회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 어른들은 수련회에 가서 청소년들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른다. 이런 시간을 통해 알리게 되면 어른들도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수련회 때 물질적 후원이나 기도로 후원을 받

는데 유익하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학생들 스스로 하도록 하며 사역자들은 서포터의 역할을 하면 된다.

또한 저녁예배 때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교회들은 중고등부 예배 때 이 행사를 진행하면 수련회에 가지 않은 청소년들이 내년에는 가고 싶은 맘이 들 수 있으며 새 생명 전도축제와 연계하여 진행하면 새로 나온 청소년들에게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교회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③ **meeting day**/ 1박 2일을 진행하기 어려운 조를 위한 프로그램

- tip : 수련회를 다녀온 후 조별로 다시 모이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이 참 많다. 이 때 교회에서 3부 순서나 놀토를 이용하여 모든 조가 다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준다. 이 때 교회예산에서 일정 금액(2만원)을 지원하여 조별로 교회 내에서 취사를 가능하게 하여 교회에서 먹거리 파티를 하는 것인데 꼭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이 때 수련회를 가지 않았던 학생들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학생들도 조 편성을 하여 유대관계를 맺게 하고 다음 수련회 때 꼭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

④ **온라인 게임 대회**/ 스타크래프트, 오디션(춤추는 게임), 카트라이더, 포트리스

- tip : 요즘 청소년들은 온라인 게임에 열광한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게임 대회를 열어 수련회 다녀온 후 새새명 전도축제를 준비하는 사이에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전도에도 사용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만든다. 요즘 집에 노트북이 있는 청년교사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있다. 양해를 구하여 빌리고 실제 대회처럼 무대와 자리배치들을 꾸미고 대회를 연다. 이 때 개인전과 단체전 시합을 만들어 시상을 하며 이 때 단체전을 수련회 조별로 나오도록 유도를 한다. 게임을 정할 때 남자 청소년들(스타, 포트리스) 여자 청소년들(오디션, 카트라이더)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선정해야 한다.

◐ 기타 프로그램 ◑

① **싸이월드 클럽 만들기**

- tip : 요즘학생들이 자주 하는 싸이월드에서 조별로 클럽을 만들어 클럽에서 교사와 청소년들이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② **bank for mission**

- tip : 선교여행을 목적으로 학생들이 저금을 하도록 한다. 관리는 교사가 하며 수련회 이후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비전트립을 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며 지원을 해 준다. 그런데 지원을 함에 있어 100% 지원을 해주는 것 보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자신들의 물질도 드려 비전트립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먼저는 가까운 국내와 이 경험들이

쌓이면 해외 선교사님과 연계하여 국외 비전트립까지 계획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③ 엽서는 사랑을 타고

- tip : 일주일에 한 통씩 수련회를 다녀 온 후 나오지 않는 친구들에게 엽서를 보내도록 한다. 이 때 교사는 의무적으로 전체 학생들에게 발송을 하도록 하며 청소년들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하도록 도와준다.

④ 추억의 사진첩

- tip : 수련회를 다녀온 후 찍은 사진들을 이용 조별로 모이거나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사진첩을 만드는 것이다. 이 때 사진첩은 일반 노트를 사용해도 괜찮으며 사진첩에 관해서는 자유스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꾸미는 것도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꾸미도록 한다.